

## 2016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2차 공모) 선정 심 의 평

먼저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2차 공모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이 거리, 상권, 골목, 전통시장, 대표 문화시설 등 지역의 주요 장소를 활용하여 공연, 체험, 교육, 마켓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공모하였습니다.

다원예술, 시각예술, 음악,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사업으로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등 총 16개 지역에서 106개 단체가 지원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선정 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 기준으로는 사업의 참신성, 차별성, 지역적 특성과 실행 주체의 역량, 문화가 있는 날 홍보 효과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통해 해당 기준을 엄두 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기획자 및 단체가 참여했는지와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기획 아이디어가 미흡하고, 백화점식 나열형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를 심분 이해하고,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10개를 1차 선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류로 확인한 사업 계획서가 실제로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였고, 계획서에 제출한 대로 실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갖고 있는 5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 단체들 중 일부 단체는 사업수행에 앞서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및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심의위원 일동 -